

희망을 인쇄하는

EM실천사람들

EM실천의 설립은 3년 전인 200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톨릭대 이용표(40)교수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신질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 복귀 시 유용하게 활용될 기술 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하자'라는 취지로 'EM실천'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EM실천' 설립을 주도하면서 부딪힌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할 것 인가였다. 비슷한 시도가 이미 송파구에서 있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분식점으로 출발한 송파구의 한 사례는 체인점 문의가 들어 올 만큼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훌륭한 성공사례라며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신질환자가 운영하는 이상한 음식점'으로 낙인이 찍혀 결국 잘 나가던 음식점은 폐업의 순서를 밟게 됐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애초부터 먹는 장사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논문집이나 기타 자료집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용표 교수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획실의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

막상 진로를 정하고 나자 이번에는 설립 및 운영자금 확보가 난제로 등장했다. 후원을 얻을 수 있을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예상했던 난관이었지만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 교수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자칫 좌초될 뻔했던 이 교수의 발상을 도와준 이들이 나타났는데 이 교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이었다.

“초창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때였어요.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고 마침 기회가 있어서 사업 의도와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선뜻 도와주더라고요”

박봉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었지만 다들 이교수의 취지

에 동감을 했고 나중에 반드시(?)돌려주겠다는 이교수의 약속에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급한 대로 인쇄사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중고 복사기 2대를 구입했다.

이용표 교수가 사장 직책을 맡고 허병희 과장을 주축으로 3명의 정신질환장애인이 취직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복사기를 뜨겁게 달굴 인쇄물 수주는 이 교수가 동료 내지는 스승, 후배 교수들에게 통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어렵사리 얻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어렵게 확보된 물량도 자칫하면 제작 단가도 확보하지 못하고, 납품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애초부터 인쇄사가 아닌 기획실을 표방했던 탓에 부수가 많거나 2도 이상의 컬러를 필요로 하는 인쇄물의 경우 충무로 일대에 외주를 맡기고, 비교적 손쉬운 작업, 그야말로 복사기로 가능한 작업은 'EM실천'이 직접 제작을 도맡았다.

하지만 손쉬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제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20부 할 것을 200부를 한다든지, 제본과정에서의 실수로 중간 내용이 빠진다든지 하는 인쇄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로 인해, 계약 단가를 뛰어넘는 제작단가가 투입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아닌 복지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회사는 깨끗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잘 운영됐고 입 소문을 통해 이 교수의 손님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단체, 협회 그리고 일반 고객들도 드나들기 시작했다.

기획실에서 인쇄사로 탈바꿈

지난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쇄사 흥내를 내기 시작했다. 기존 복사기 조작과 납품 및 원자재 구입이 전부였던 직원들에게 본격적인 인쇄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작업도 더불어 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EM실천'. 전혀 인쇄업체 답지 않은(?) 'EM실천'이라는 특이한(?) 상호 명을 쓰고 있는 이 회사의 주요 품목은 마스터인쇄물이다. 인쇄업체 상호 명에 '능력부여'라는 뜻의 'Empowerment'라는 상호가 들어간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쇄업체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EM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선 회사가 위치한 건물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쉬운데 'EM실천'이 위치한 건물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이며, 아울러 'EM실천'이 속한 재단이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인쇄공장을 굳이 이해하려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었던 '생산적 복지'를 이해하면 된다. '생산적 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혜택을 받는 수동적 복지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회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는데 'EM실천'이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한 것이다.

시됐다. 직원들에 대한 기술 전수와 본격적인 인쇄회사 운영을 위해 20년 경력의 일류 인쇄기술자 한 명을 고용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 받아 양면 마스터 인쇄기를 비롯해 재단기, 제본기, 제판기, 추림기, 정합기 등 인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발한 회사가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으니 기술전수를 위해 고용한 인쇄 기술자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새로운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화 됐고, 결국 올 4월엔 기술책임자가 18년 인쇄경력의 김형광(39)씨로 교체됐다.

전임 기술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김형광씨도 자신이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정신질환장애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지만 잘 적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의 반응도 괜찮은 편이다.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일반인들보다 기술전수가 느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자신의 눈동자만큼이나 남을 크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김씨로 인해 5명의 직원들은 기술전수 3개월이 지난 지금 자신이 맡은 기계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애인에 대해 이해할 줄 아는 김형광 씨의 등장 외에도 'EM실천'은 올 한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은 공장 이전을 들을 수 있는데 올 2월 좀더 쾌적한 지금의 공장으로 이전했다.

문창숙(36)사장의 등장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용표 교수의 아내이기도 한 문 사장의 등장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거래선의 다변화이다.

대학교수란 신분을 이용(?),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 망을 확보하고 있던 이용표 교수와 달리 뚜렷한 거래 망이 없던 문 사

장은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점들의 홍보 유인물, 중·고등학교 교사용 부수 교재, 요업기술원 등 거래선을 다변화 시켰다.

정상적인 능력 부여할 것

이러한 노력 탓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EM실천'의 마스터 기계는 쉬지 않고 인쇄물을 뽑아내고 있다. 5월에는 밀려오는 일거리 때문에 7일 동안 야근 작업을 해야했다.

5월에는 손익분기점도 돌파했으며, '회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대부분은 다시금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회사 운영 지침 탓에 초창기 20~30만원씩 하던 직원들의 월급도 점차 늘어나 2~3배 수준으로 뛰었다. 초창기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결과이지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임규설 과장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일류 인쇄 기술자가 받는 만큼의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을 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일류 기술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부여(Empowerment)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목표가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상 인쇄 기술자가 받는 만큼의 대우를 받았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지만 금전적인 지표만이 직원들이나 문 사장의 목표는 아니다.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돈으로 거래 가능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편견에 지친 'EM실천' 인쇄공장 직원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고쳐지는 날까지 '희망'을 토해내는 'EM실천'의 인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홍우기자〉